

## 교회 소식

- “열린 문으로(계 3:7-8)” 우리 마음과 눈의 문이, 삶의 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매일 저녁 9시 아프신 분들과 우리를 고치고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나라들과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음을 합해 기도합니다. 3월 한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9-10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다락방을 열어두겠습니다.
- 심방 일정표에 심방을 신청해 주십시오.
- 오늘 친교를 섬겨 주시는 석동훈 강승연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오영숙 집사 (시편 119:9-16)
- 친교: 김종한 장로/김현정 권사
- 3월 안내: 함인옥 집사

##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English Service:** 2:00pm, Zoom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2:00pm, Zoom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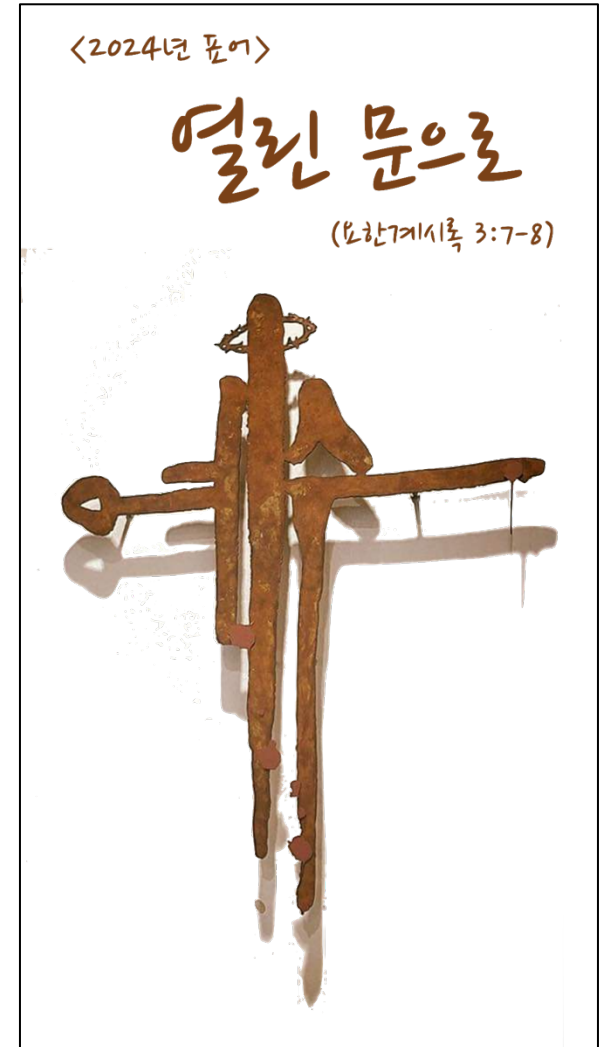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장효종 / **반주자:** 이현주

## 기도

예수님께 활짝 열어 모셔드린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 불의와 탐욕,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영호,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크로아티아 순돈호,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mailto: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http://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http://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2024년 표어> “열린 문으로” 요한계시록 3:7-8

Order of English Service

<2:00pm>    Presi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Prayer----- Pastor Edwin

Word of God----- **Ephesians 2:12-13** -----Pastor Edwin

Sermon ----- “**Without Hope, --- Without Christ, Without God**” ----- Pastor Edwin Kim

Reflection Prayer----- Together

Lord’s Prayer ----- Together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위한 기도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488(539)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함께

**Hymn**    94(102) “예수보다 더”  
  90(98)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대표기도 ----- 시편 107:1-3, 17-22 ----- 윤정숙 권사

**Prayer**

찬양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 ---- 세광찬양대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시편 114** ----- 인도자

**Word of God**

설교 ----- “**성소와 영토**”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 325(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함께

**Hymn**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오늘의 말씀

**성소와 영토 (시편 114)**

구원은 건지는 것인 동시에 삼는 것입니다. 노예의 땅에서 자유케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 삼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건져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흥해만 갈라 탈출케 하실 뿐

아니라, 시내산도 두려워 떨린 위엄 가운데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어깨에서 짐을, 손에서 광주리를 제한 것이 아니라 짐에 눌린 어깨를 안으시고, 헛된 일 하던 손을 붙잡아 이끄십니다(시 81:6).

홍해와 요단이 물러가고, 산들이 뛰는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도 기뻐할도 거룩함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것처럼 절박할 때, 길없는 광야에서 답답하고 목마를 때, 도무지 꿈쩍하지 않는 산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염려한다고, 계획을 잘 짤라고, “물러가라!” 큰 소리로 외친다고 바다가 열리고 산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면 예수님이 건너고 넘으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생각보다 밤이 길 수도, 어려움은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안 열리고 안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길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푸른 초장이고, 예수님과 나누는 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잔입니다.

죄와 한 편이 되어 멀리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씻어 달라 하거나, 말로만 들은 십자가 내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풀려났다고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 승리합니다. 용서만 바라지 말고 말씀이 다스리시는 영토가 됩시다. 지옥만 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가 됩시다. 우리를 안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지옥 권세가 떨며 물러갑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한 편이 되어 왜 구하지 않으시냐고 멀리 계신 예수님께 원망하지 맙시다. 이미 한 편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 겁과 두려움을 내려다 봅시다. 어려움을 이기고 복을 받는 데만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이 복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성소와 영토로 삼으셨으니, 예배와 기도는, 말씀과 순종은 우리의 양식이고 힘이고 승리입니다.